

# 주요 업무 추진계획

2015. 1.



## 목 차



I. 일반현황 .....	1
II. 추진성과 및 반성 .....	4
III. 정책 환경 .....	9
IV. 비전 및 목표 .....	10
V. 주요업무 추진계획 .....	11
1. 미래형 글로벌 허브항만 기반조성 .....	11
2. 북항과 신항의 동반성장을 통한 부산항 경쟁력 강화 .....	14
3. 현장·사람 중심의 해양안전 및 선원해사정책 추진 ...	17
4. 아름다운 연안공간 창조 및 해양문화 기반 확충 .....	20
5. 맞춤형 수산정책 기반조성 .....	23

# I. 일반현황

## 1 주요업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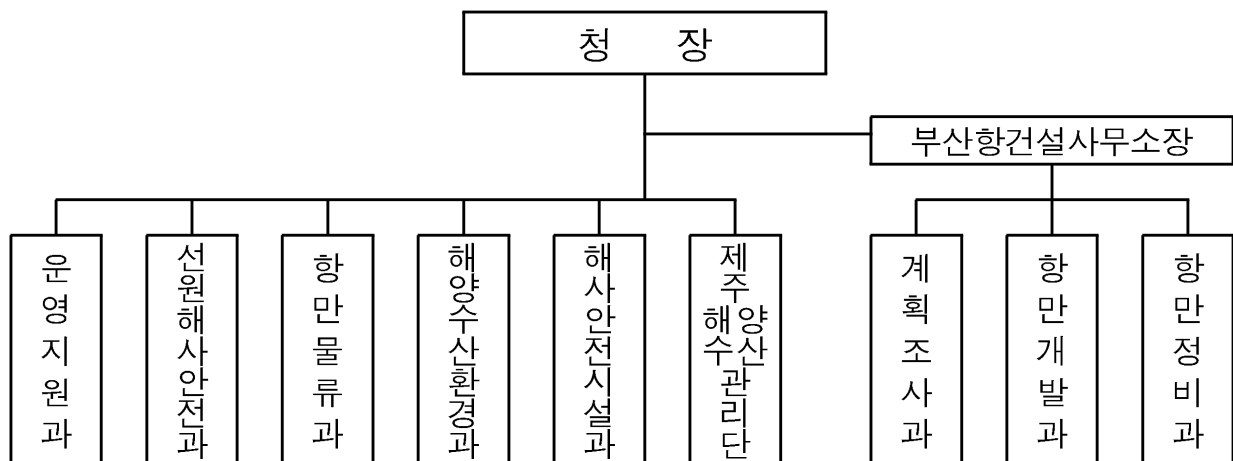
- ①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시설관리(어항 포함)
  - ② 해운, 항만, 물류산업 육성·지원 및 선원해사 안전관리
  - ③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 관광·레저 등 해양문화 활성화
  - ④ 맞춤형 수산정책 기반조성 (어업경영체등록·관리,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도·평가)
- ※ 직제개정에 따라 해양폐기물 배출관리('14.11), 수산 및 어항건설 업무이관('15.1)

## 2 조직 및 정현원

◆ 기 구 : 5과, 1단, 1사무소(3과)

◆ 인 원(정/현원) : 225명 / 207명

※ 국민안전처 전출·파견(정원 △57명, 현원 △55명) / 수산업무 이관(정원 +3명, 현원 +1명)

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고공단	3·4급	4·5급	5급	6급	7~9급
합계	225/207	2/2	6/5	3/3	24/22	75/72	115/103
부산청	142/131	1/1	3/3	2/2	12/10	50/50	74/65
부건소	37/34	1/1	3/2	-	8/8	11/11	14/12
제주단	46/42	-	-	1/1	4/4	14/11	27/26

※ 청경(73명) 별도(제주단 72명, 부건소 1명)

## 3

## 예산현황

□ '15년 예산은 전년대비 21.4% 증가한 3,048억원

※ 직제개정에 따른 어항건설 등 예산 이관 ('15년, 29억원)

○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\*은 전년대비 22.1% 증가한 1,374억원, 북항 재개발사업\*\*은 전년대비 83.3% 감소한 20억원 확보

\* 부산항 신항 중심(2단계) 준설 본격 추진('14.12 착공)에 따른 사업비 증가

\*\* 북항재개발(1단계) 주요사업 완료로 '15년 예산은 보행테크 설계비 20억원 반영

(단위:억원)

구 분		'13년	'14년 (A)	'15년 (B)	증감 (B-A)	(%)
□ 2015년 예산(총 계)		3,216	2,511	3,048	537	21.4
교 특	(소 계)	2,757	1,983	2,538	554	27.9
	○ 부산신항개발	1,337	1,126	1,374	248	22.1
	○ 부산북항재개발	267	120	20	△100	△83.3
	○ 부산항개발	1,042	619	947	328	53.0
	○ 기타 항만시설 등	111	118	197	79	66.9
에 특	○ 유류비보조	90	77	77	-	-
농 특	○ 어항건설	20	18	28	10	55.6
	○ 어업경영체등록	-	-	0.7	0.7	순증
일반	○ 해양환경 및 항만운영	145	220	190	△30	△13.6
	○ 해양수산행정지원 (인건·기본경비)	204	213	214	1	0.5

※ 각 연도별 예산은 전년도 이월을 제외한 연도말 예산현액 기준임.

#### 4

#### 항만시설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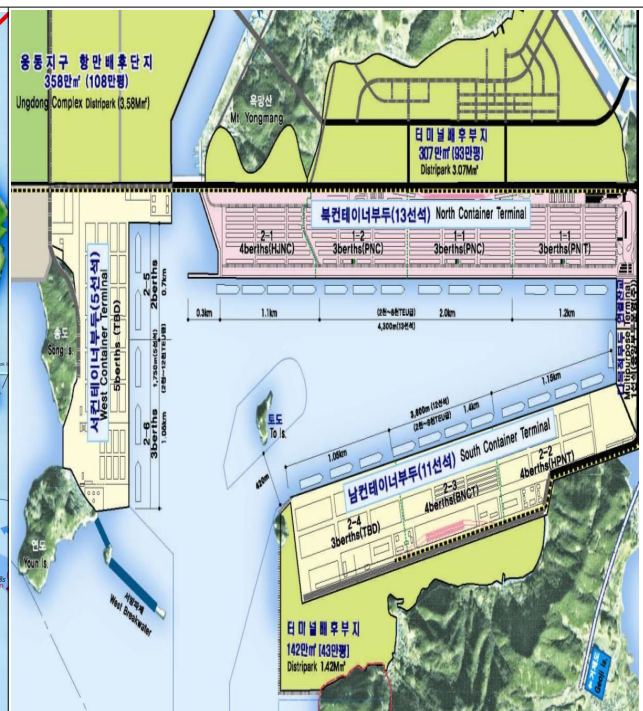
- (“컨”전용부두) 10개 터미널 총 41선석, 적정 처리능력은 1,557만TEU
- (북항) 5개 터미널 20선석(5만톤 15선석, 5천~2만톤 5선석), 처리능력 634만TEU
  - ※ 운영 : 4개 터미널 16개 선석(우암3, 감만1 제외)
  - (신항) 5개 터미널 21선석(5만톤 17선석, 2만톤 4선석), 처리능력은 923만TEU

#### <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시설현황>

북 항			신 항		
터미널	선석현황	처리능력	터미널	선석현황	처리능력
소 계	5만×15, 기타 5	634만TEU	소 계	5만×17, 2만×4	923만TEU
자성대	5만×4, 1만×1	170만TEU	PNIT	5만×3	138만TEU
신선대	5만×5	200만TEU	P N C	5만×6	273만TEU
감 만	5만×4	156만TEU	한 진	5만×2, 2만×2	160만TEU
신감만	5만×2, 5천×1	78만TEU	현 대	5만×2, 2만×2	160만TEU
우 암	2만×1, 5천×2	30만TEU	BNCT	5만×4	192만TEU



< 부산 북항 >



< 부산 신항 >

## II. 추진성과 및 반성

### 성 과

#### □ 항만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운영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

- 글로벌 경기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, 꾸준한 물동량 증가와 환적화물 유치에 힘입어 1,865만TEU(전년대비 5.5% 증) 처리
- 북항 “컨” 터미널 운영사 통합 및 “컨” 하역요금 인가제 도입('14.9~) 등을 통한 하역시장 안정화 및 항만산업 경쟁력 제고

\* 북항 운영사 통합 : 감만 3사('13.12) , 신선대-우암('14.2)

- 「해양경제특별구역」을 위한 제도 도입('14.3, 특별법 발의) 기반마련을 위한 현장업무 지원\*

\* 해양플랜트 현장방문(대우조선, 선보공업 등) 등 관계부처 협의(본부, 부산시)

- 노·사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줄여 부산항의 항만산업 평화 유지 및 항만운영 안정화 도모

\* 「부산항 노·사·정 항만평화산업 공동선언」 발표('14.1)

#### □ 부산항 신항 항만인프라(수심확보 및 배후도로 등)를 적기 확충하고 항만 물류단지 활성화를 지원하여 동북아 물류허브항만 조성

- 대형선박의 안전한 입·출항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항로 증심(2단계) 준설사업\* 착수 및 수역시설 개선\*\*추진('14.7, 기본계획 반영 건의)

\* (증심2단계) : 준설 1,163만㎡(수심 -17m) / '14.12~'17.2 / 449억원

\*\* (수역시설 개선) : 토도제거, 항로확장(항로 폭570 → 1,030m)

- 갈수록 증가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및 주변 도시와의 연결도로망 구축을 위한 주간선도로 서측구간\* 완공

\* (주간선도로) 도로 2.35km(교량 L=765m 포함) / '10.2~'14.2 / 1,309억원

- **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완공으로 물류부지 249만㎡를 추가 확보\***하고 배후단지 입주기업 유치 등 **물류활성화 지원**

\* (웅동1단계) 총 249만㎡ : 우리청 116만㎡(1·2공구) + BPA 133만㎡(3·4공구)

☞ '14.12월 현재 전체 배후부지 944만㎡(계획) 중 44%(419만㎡)를 확보(개발),  
⇒ **신항 웅동지구 973천㎡ 운영부지 중 86.3%(840천㎡) 입주완료 (24개사 운영)**

- **화물처리 중심 재래부두에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상업·문화 해양관광 거점으로 북항 재개발 정부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**

- 1-1단계 외곽시설\* 지속 추진, 1-2단계 국제여객부두\*\* 축조공사 준공, 배후도로(지하차도 1.86km) 실시설계용역 지속 추진

\* (외곽시설) 방파제 150m 및 호안 3.5km 등 / '09.2~'15.7 / 573억원

\*\* (국제여객부두) 국제여객부두 718m, 크루즈부두 360m / '12.5~'14.11 / 551억원

- **현장중심의 빈틈없는 해양안전 관리체계 강화**

**선박충돌 등 해양안전 사고\*와 관련하여 해상교통 환경개선, 항만이용자 안전의식 제고, 선박·시설 안전성 강화 등 해양안전 관리체계 강화**

-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구역 확대\*('14.4), 시운전 선박 통항금지해역 확대\*\*('14.1)

\* 관제구역 확대 : 당초) 5~8마일 이내 ⇒ 개선) 12마일까지(고위험 선박)

\*\* 시운전 선박 항해안전 제고를 위한 민·관 협의체 운영('14.1)

- **항만관련 사업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\***을 강화하고, 각 분야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**제도개선\*\*** 추진

\* **5대 중점 관리분야**(해상작업, 유류시설, 항만운영, 어로 및 개항질서, 항만공사 및 표지시설) 분기별 합동점검으로 취약요소 발굴·개선(25건)

\*\* 도선구별 최소 안전기준 등 도선매뉴얼 마련('14.3), 기상악화 시 선박급유를 금지('14.7, 자체안전관리계획서 반영), 선박급유선의 안전시설 확보('14년, 법령 개정 추진)

- **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이관에 따른 겨울철 특별 안전점검('14.12)**

## □ 사람(S/W, 안전관리컨설팅) 중심의 해양안전 관리체계 기반 조성

- “해양안전실천 부산지역본부” 운영 활성화\* 및 매월 1일 “해양안전의 날” 지정·운영

\* 부산지역본부 운영회의(2회), 지역본부 사무국 설치(4.8), 제1회 부산항 해양안전사진공모전(11.3~21) 및 홍보 게시물부착(부산항 전역 15개소)

-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종사자 현장교육\* 및 대규모 해양오염 및 선박사고 대비 재난 대응훈련(10.22)

\* 취약선박 방선교육(202척/1,143명), 외부강의(784명), 순회교육(169명)

## □ 해상안전 사고 예방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준수

- 외국적선 항만국통제(PSC) 525척(연간 목표 520척), STCW협약에 따른 선원근로기준 준수 여부 집중점검(181척),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외관·개방점검(3,925TEU)

\* 세월호 참사에 따른 외국적 국제여객선 특별점검(48척)

- 국제보안협약 준수를 위한 사업장·선박 보안 인증\*(ISPS),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수립을 위한 사업장·선박 인증\*\*(ISM)

\* 보안계획서 검토·승인(180건) 및 선박보안심사(105건), 선박보안 정보 분석·승인(13,521건)

\*\* 사업장 심사(45건), 선박심사(61건),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 등록·변경(204건)

## □ 부산항 항만보안 강화대책 수립·시행으로 보안사고 사전 예방

- 항만 보안시설(22개소)을 재평가하여 취약요인 발굴 및 개선\*, 한/아세안 특별 정상회의(12.11~12) 대비 부산항 테러방지대책(보안 2등급 상향) 추진

\* 경비보안 인력증원(10명), CCTV 보강(23기), 보안울타리 보수·보강 등

- 우리부 주관 「2014년도 소속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」에서 1위 기관으로 선정('14.12, 장관표창)



## □ 쾌적한 해양환경 및 국민이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공간 조성

- 조형등대를 활용한 해양문화 저변확대\* 및 체험형 해양레저스포츠 콘텐츠 개발·운영\*\*

\* 영도등대 음악회(3회), See&Sea 갤러리(19회), 여름등대학교(3회), 등대체험숙소(65회)

\*\* 카약체험장 3개소(체험인원 17,142명) 및 장관배 카약대회 개최('14.7), wesea 아카데미(8회, 440명)·해양환경보전 체험교실(2회, 80명) 등

- 해운대 해수욕장의 옛 모습의 복원을 위해 백사장을 확장(40m → 60m) 하는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\* 추진

\* 양빈 62만<sup>m³</sup>('14년 19만<sup>m³</sup> 투입), 잠제 380m 등 / '12.11~'17.2 / 344억원

- 해양오염원 제거활동\* 등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

\* 남항 오염퇴적물 수거사업 준공(92,322<sup>m³</sup>), 해양오염 방제(캡틴반젤리스 접촉사고, 237<sup>kl</sup> 유출), 침몰선 폐합판 수거(350톤 유출), 부유 및 바닷가 쓰레기 수거(447톤), 방치선박 제거(2척) 등

## □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정부3.0 행정구현

- 건설분야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항만건설현장 견학프로그램 운영, 사회 초년생의 진로탐색 기회제공 (3회 / '14.11~12.5)
- 관세청의 국제화물품목코드(HS Code\*)를 Port-MIS에 연계하여 화물품목코드의 신뢰성 제고 등 협업을 통한 항만민원서비스 개선('14.2)
- 동삼혁신지구 내 해양클러스터기관간 「교육·홍보 협의체」를 운영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 해양교육·홍보를 위한 기반 조성

※ 협의체 운영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홍보 : 리플렛 제작 배포(2회)

## 반 성

- 부산항 “컨”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중국 항만의 급속한 성장으로 부산항이 세계 6위로 하락하는 등 양적성장에 한계
- 감만부두 통합 운영사 출범 후 【13.12, 부산국제터미널(BIT)】 물동량 감소, 선대이탈, 통합인력 조정지연 등으로 경영 악화 지속 등 성과가 미흡
- 제조기업 투자 활성화 및 입주기업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\*등 다양한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로 연결되는 사례는 부족한 상황
- \*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('14.7, 우리부) : 입주기업 화물창출 평가 부담완화, 사업계획 및 출자지분 변경 일부허용 등

☞ 초기 도입단계인 하역사 통합, “컨” 하역요금 인가제가 항만 하역 시장 안정화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 후속조치 필요

- 위해요소별 집중 안전점검 및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등 해양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
- 태풍 등 해상안전 위협 요인에 의한 연이은 선박충돌 및 오염사고 발생으로 안전사고 예방대책 실효성에 한계
- \* 너울에 의한 선박접촉('14.2, 남외항 정박지) / 태풍내습 시 침몰선박 화물유출('14.8, 생도인근) / 화물선과 “컨”선박 충돌('14.12, 목도 남동방 1.9마일 해상)

☞ 분야별 취약요소(인적과실)에 대한 사전점검·개선 및 사고발생시 현장중심의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확립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

### Ⅲ. 정책 환경

#### □ 대내외 경제 전망

- (세계 경제) 유로존·일본·중국경제의 부진·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신흥국의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완만하게 개선(3% 중반의 성장 전망)

\* (성장률 전망, %) IMF : '14) 3.3 → '15) 3.8, OECD : '14) 3.3 → '15) 3.7

- (국내 경제)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, 유가의 하향 안정세 등으로 점차 개선, 소비·투자심리 회복 지연으로 성장률은 3% 중반으로 예상

\* (성장률 전망, %) IMF : '14) 3.4 → '15) 3.5, OECD : '14) 3.5 → '15) 3.8

#### □ 해운·수산업 분야

- (해운동향) '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상 운임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해운시장 장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

- (전망) 중국 산업구조 변화, 공급과잉 지속 등으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, 본격적인 시황 회복 지연 예상

- (국내 “컨” 물동량) 주요 선진국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입·환적 증가에 힘입어 '14년 대비 5.5% 증가한 2,610만TEU 처리를 기대

☞ 부산항은 '14년(1,865만TEU) 대비 5.1% 증가한 1,960만 TEU 처리 목표

※ 수출입 950만(2.3%↑), 환적화물 1,010만TEU(7.3%↑)

- (수산업) 재해발생,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생산의 불확실성은 증가 추세, 수산물의 국내소비는 회복세이나, 미래 수요층의 소비기피는 심화될 우려

※ 2013년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3,155천톤으로 지난해 대비 0.9% 감소

#### □ 해양문화·관광분야

-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로 해양관광·레저 및 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

※ 해양관광객 연평균 9% 증가 전망(KMI) : ('08) 139 → ('14) 218백만명

- 바다가 주는 치유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크루즈, 카약체험,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관광콘텐츠 개발 필요

## IV. 비전 및 목표

**비 전** 미래를 여는 세계일류 허브항만 실현

목 표	◆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('14년, 1,865만TEU → '15년, 1,960만TEU)
	◆ 컨테이너 전용부두 ('14년, 21선석 → '19년, 26선석)
	◆ 해양사고 30%전국 줄이기
	◆ 체계적인 자원관리 및 어업인 지원 인프라 조성

4대 정책과제	세부 추진 과제
미래형 글로벌 허브항만 기반조성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부산항 신항 인프라 확충</li> <li>2 해양 문화·관광이 융합된 복합기능 항만조성</li> <li>3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선진항만 구현</li> </ol>
북항과 신항의 동반성장을 통한 부산항 경쟁력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 북항 기능재정립을 통한 항만의 고부가가치화</li> <li>5 안정적인 항만운영 여건조성 및 항만시설 기능강화</li> <li>6 정부3.0 구현(협업 등)을 통한 항만민원서비스 제고</li> </ol>
현장·사람 중심의 해양안전 및 선원해사정책 추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7 위해요소 사전발굴 등 안전한 부산항 만들기</li> <li>8 현장사람 중심의 해양안전문화 정착 및 전문성 강화</li> <li>9 고품질 항행안전 및 항만보안 서비스 제공</li> </ol>
아름다운 연안공간 창조 및 해양문화 기반 확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0 이용자 중심의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</li> <li>11 고부가가치 연안공간 조성 및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</li> <li>12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및 해양교육문화 저변 확대</li> </ol>
맞춤형 수산정책 기반조성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3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자율어업육성</li> <li>14 다기능 어항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</li> </ol>

## V. 주요업무 추진계획

### 1 미래형 글로벌 허브항만 기반조성

- ◆ “컨”부두, 배후물류단지, 배후수송시설 등 항만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해 명실 상부한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상 강화

#### 1 부산항신항 인프라 확충

- (개요) 항만 인프라(“컨”터미널, 배후단지, 증심준설 등) 적기 확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 항만으로 육성

☞ (계획) 16조 6,823억원\*을 투입하여 45선석(하역능력 2,301만TEU/연), 배후단지(944만㎡), 도로(44.59km), 철도(53.1km) 등 개발

\* 정부 7조 4,551억원, 민자 9조 2,272억원

☞ (현황) 21선석(하역능력 923만TEU/연), 배후단지(419만㎡), 임항교통시설(제1배후도로, 진입도로, 배후철도, 남·북임항철도 등) 운영 중

\* 현재까지 총 8조 7,115억원(정부 5조 1,909억원, 민자 3조 5,206억원) 투자 (총 투자예상액의 52.2% 수준)

\*\* 항만배후단지내 54개(북컨 30, 웅동 24) 업체 운영 중이며, 웅동지역 4개 업체에서 입주 준비 중

- (“컨”터미널) 2-4단계(3선석, '14~'19), 2-5단계(2선석, '12~'17), 북측 피더 부두(1천TEU급 2) 지속개발

\* '14년말 현재 ‘컨’ 전용부두 21선석 운영 중(연간 하역능력 923만TEU)

- (배후단지) ① 서“컨”(47만㎡, '13~'18) 연약지반처리 ② 남“컨”(144만㎡, '14~'17) 공사착공('15.상) 등 단계별 조성

- (수역시설) 초대형선 입·출항을 위한 증심준설 지속추진\* ('15→'17m, '10~'16), 토도(土島) 제거 설계착수('15.3) 등 통항안전성 확보

\* (1단계) 방파제 內(15→16m, '13.1) ⇒ (1-2단계) 방파제 外(15→17m, '14.3) ⇒ (2단계) 전수역(16→17m, 1,163만㎡, '17.2)

- (배후수송시설) 배후·임항도로를 지속 확충하여 막힘없는 화물 수송 지원

\* (배후도로II) 웅동지구 배후단지와 진례JC 연결도로 15.3km(4차선, '12.7~'17.1, 민자)

\*\* (임항도로) 보상 협의 지연으로 미개통으로 남아 있는 북컨 임항도로 종점부 구간 보상을 마무리하고 개통(0.33km, '15년, 13억원)

## ○ 북항-신항간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인프라 조성

- (신항-북항 연결도로) 신항과 북항 간 원활한 화물 수송을 위한 항만 배후도로 건설사업 '15년 국가지원금 지급(부산시)

\* 재정지원 2,380억원(총사업비 1조 3,377억원), '14년까지 2,248억원, '15년 55억원

## ② 해양 문화·관광이 융합된 복합기능 항만조성

- 국제해양관광 및 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위한 북항재개발 사업의 기반시설(외곽 및 접안시설) 적기 추진

### 《부산북항 재개발 사업개요》

- 사업구역 : 북항 1-4부두, 중앙부두, 부산항 국제·연안여객부두 일원
- 사업기간 / 사업규모 : '08~'19(12년) / 부지조성 1,532천㎡(≒46만평)
- 사업비 : 8조 5,190억원(정부 2,157억원, BPA 1조 8,233억원, 민자 6조 4,800억원)

- 변경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경관수로호안 축조, 교통량 분산을 위한 지하차도(1.86km) 실시설계('13.12~'15.12) 지속 추진
- 철도부지로 단절된 도시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원도심과 재개발 지구를 연결하는 보행데크\* 기본·실시설계 추진('15년)

\* (개요)부산역에서 국제여객터미널까지 보행환경 조성 / 20억원(수시배정)

○ 신산업으로 부상하는 국제여객 및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

- 국제여객터미널 및 신규 크루즈부두 운영('15.1), 영도 동삼동 크루즈 전용부두 증설(8만톤→22만톤)\* 등 크루즈 인프라 확충

\* (사업개요) 크루즈부두 확충 75m / '15~'18년 / 총사업비 440억원('15년, 설계 23억원)

《'14년까지 추진실적》

☞ 북항재개발 사업지구 내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을 위한 접안시설\* 등 축조

\* 국제여객부두 968m, 크루즈부두 360m / '11~'14년 / 총사업비 595억원

- 국제여객터미널 시범운영 기간('15. 상) 동안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중교통 확충, 주차장 확보, 주변 미관 개선 등 여객 불편 해소

③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선진항만 구현

○ 해양플랜트, 마리나 등 고부가가치 신해양산업 육성 및 북극항로 대응방안 모색 등 부산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

- 지역 요구사항\*을 조화롭게 수용하기 위해 정책현장 실수요자(부산시, 시민 등) 의견이 계획 수립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 강화

\* 북항 해양플랜트 단지 유치, 북항재개발사업 총장대로 지하화 등

○ '해양경제특별구역'의 지정·운영 관련(현재 국회 상임위 계류 중) 시범지구 지정, 핵심산업 선정, 북항 재개발 계획과의 조화 등을 유관기관(우리부, 부산시, BPA)과 다양한 창구를 통해 논의

\* 「부산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」 수행 중('14.12~'15.11) / 부산발전연구원 등

- ◆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능력 6위 하락 등 양적성장 한계 극복과 항만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,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쟁력 확보

#### ④ 북항 기능재정립을 통한 항만의 고부가가치화

- 감만-신선대 터미널 통합 운영법인 출범\*('14.2)에 따른 행정지원 강화 및 북항 터미널 운영사 추가통합 추진

\* 감만부두('13.12, BIT) / 신선대-우암터미널 통합운영('14. 2)

- 임대료 감면(15%)·유예(15%), 통합법인 출범에 따른 비용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, 임대료 체계개편\* 추진

\* 현재 BPA에서 통합운영사에 대한 임대료 체계개편 연구용역 진행 중

- 북항 기능 재정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두통합으로 인해 폐쇄된 감만부두 4번 선석('13.12)과 우암부두('14. 2) 활용방안 모색

#### ⑤ 안정적인 항만운영 여건조성 및 항만시설 기능강화

- 항만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

- “컨” 하역요금 인가제 시행('14.9)에 따라 적정 하역요금\*을 받을 수 있도록 “컨” 하역요금 인가 조치('15.3)

\* 적정 하역요금은 본부의 “컨”하역요금 체제개편에 따른 운영방안 용역(KMI, '14.7~'15.3) 결과에 따라 구체적 시행방안 수립

- 항만운송사업 실태조사(등록기준, 인가요율) 를 통한 항만운송사업 질서 확립('15.하)



## ○ 부산항 항만하역 노무인력 안정화 방안 추진

- 항만운송에 투입되는 인력의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하여 부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,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·운영(항만운송사업법 개정, '15년)

\* 부산항에서는 그간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「부산항 항만인력수급관리 협의회 운영 규정」 확정 및 노·사·정 대표 서명 추진('15.3)

- 북항 운영사 통합 등으로 인해 항만인력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노·사·정 협의를 통한 안정적 노무인력 공급 관리(연중)

## ○ 항내 정온수역을 확보하여 항만가동률 제고 및 부두 기능향상을 위한 외곽시설 신설 및 보강

- 조도 및 오류도 방파제 보강('15~'20년), 다대포항 외곽방파제 축조('12~'15년), 용호부두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방파제 축조('14~'17년)

☞ (조 도) : 방파제 700m 보강 / '15.2~'20.3 / 1,045억원('15년 125억원)  
(오 른 도) : 방파제 1,004m 보강 / '15.6~'20.6 / 1,146억원('15년 140억원)  
(다대포항) : 방파제 1km 신설 / '12.12~'15.11 / 912억원('15년 370억원)  
(용호부두) : 방파제 200m 신설 / '14.7~'17.1 / 218억원('15년 80억원)

## [6] 정부3.0 구현(협업 등)을 통한 항만민원서비스 제고

- 항만건설 현장을 청년일자리 체험의 장으로 제공하여 관·학 상생 발전 계기를 마련

\* '14년) 항만건설 현장견학 실시(3회) ⇒ '15년) 신공법이나 특수 공법 위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마련(케이슨 Floating Dock 등)하여 확대 시행

## ○ 정부3.0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해운항만정보 서비스 고도화

- 항만물류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국 7개 센터별로 분산·운영 중인 Port-MIS의 통합 개발·지원('15.하)

- **위험물 반입정보**(해사위험물검사원) 공유 및 수출입 통관정보(관세청) 실시간 연계(Port-MIS)로 **수입 위험물(컨테이너) 검증시스템 구축**
- 부산항 신항 출·퇴근 교통난 해결을 위한 **순환 셔틀버스 운영개선**(’15.1)
  - **출발지점 변경**(강서구청역&하단역→용원&경자청) 및 운영노선 효율화를 통한 **비용구조 개선**(528 → 150백만원)
  - \* BPA, 부산시, 창원시, 북“컨” 입주업체, 웅동 입주업체 각 20%(3천만원)씩 부담하여 출·퇴근 각 3회씩 운영(45인승 2대) / 입주업체 설문조사 후 ’15.1월 시행
- 부산항 신항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**안전관리 전담 협의체**(운영사, BPA, 경찰, 소방서 등) 구성·운영(’15.상)
  - ※ 신항 행정구역 이원화(부산, 경남)로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처 곤란
- 등대 등 항로표지시설에 해양기상 관측 장비를 구축하여 **해양기상정보 공유**  
 ⇒ 항행안전 지원(국립해양조사원), 해양기상 예보(기상청), 수색구조 지원(해양경비안전서) 등 **유관기관의 정보활용 극대화**
- 수집된 해양 기상정보는 국민 정보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,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하여 **실시간 정보 제공**

- ◆ 해양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굴 · 개선하고, 사람 중심의 해양안전 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없는 부산항 위상 제고  
※ 선박사고의 80% 이상 종사자 과실에서 기인

## 7 위해요소 사전점검 등 안전한 부산항 만들기

- 5대 중점 관리분야\* 안전관리 실태 합동점검\*\*을 지속적(분기별)으로 추진  
⇒ 취약요소를 사전 발굴 및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 (정기 · 수시점검)

\* 해상작업, 유류시설, 항만운영, 어로 및 개항질서, 항만공사 및 표지시설

\*\* 우리청, 부산항만공사, 해운조합, 정유사, 선박 검사기관 등

- 선박금융선에 대한 안전시설\* 확보 의무화 등 등록요건 강화, 등록업체만 선박금융 행위 가능토록 사업계획 변경 신고제도 도입('15.하)

\* 방현재 설치,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, 오염방제 장비 확보 등

☞ 캡틴 반젤리스 L호 유류 오염사고('14.2)에 따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「항만운송사업법」 개정 추진 중

- 선박의 대형화, 가덕수로 혼잡도 증가에 따른 통항선박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신항 도선 승선구역 변경 및 기상악화시 승선구역 추가 지정('15.2)
- 부산항 위험물 반입제한 화물(화약류)의 하역장소 변경 · 지정 검토('15.상)
- 감천항 소형선 입 · 출항 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선(1천마력급 이하) 확보 방안 강구('15.상)
- 항만교통관제센터(VTS) 공동운영 등 항내 선박안전 운항 및 항만 운영을 위한 협업체제 구축('15.3)

\* 공동운영 규정 제정 및 실무협의회(우리청↔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) 구성 등

## 8 현장·사람 중심의 해양안전문화 정착 및 전문성 강화

### ○ (안전의식 제고) 「해양안전실천본부」를 중심으로 민간과 함께 해양 안전 위해요소 발굴·관리\* 및 해양안전 시민운동 전개\*\*

\* 선원, 선박, 시설물 등 5개 분야 세부 실천과제 선정('15. 3) → 취약분야 및 관리대책 마련('15. 4~11) → '부산항 해양안전지도' 제작('15. 12)

\*\* 해양안전 사진공모전(3분기), 해양안전의 날(매월 1일) 행사(워크숍, 안전체험활동 등)

### ○ (선원 역량강화) 여객선 및 내항선 선원 대상으로 집중 방선교육 실시

- 여객선(국제, 연안) 종사자 대상 합동 교육(화물고박, 복원성 등 중점)

\*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협의체(우리청, 선사, 선급, 해운조합 등)구성·운영, 특별수송 안전점검(분기별, 명절 등), 국제여객선 동승점검 (연중)

- 계절별 주요 사고유형 및 취약 선박별(유조선, 공사작업선, 예부선 등) 맞춤형 특별점검 및 방선교육 실시

### ○ (선박안전검사) 선박 검사관의 경력(승선 및 점검)을 고려하여 선종별 “전담 검사관제”를 통해 전문성 있는 점검 수행

- 계절·운항형태 등을 고려한 월별 안전 취약선종 지정, 집중점검 실시

- 「점검 및 교육 → 간담회 → 제도개선」의 선순환 체계 확립

### ○ 해사노동협약(MLC) 국내 발효에 따른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(14개 항목) 이행 등 해사노동인증제(인증검사) 내실화

- 소 지방청의 외국적선에 대한 협약이행 점검업무 지원을 위하여 「MLC 전담팀(3명)」을 「MLC 운영지원팀(5명)」으로 확대·개편('15.1~)

- (국적선) 중간 인증검사 도래 선박(131척)에 대한 증서발급('15.하)

\* 국적선 인증검사 수검사례 등 「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지침서」 발간('15. 6)

- (외국적 선박) 협약이행 취약선박(미비준, 편의치적 또는 무선급 등)을 대상으로 해사노동적합증서 비치 등 협약기준 이행여부 점검 강화

\* PSC 지침서 발간('15.상) → 항만국통제 연중 실시

## 9] 고품질 항행안전 및 항만보안 서비스 제공

### ○ 항로표지시설 기능 개선 등 정기적인 정비\*를 통한 최적의 항행안전 서비스 제공

\* 무인등대·등부표 전원시스템 개선(축전지 → 하이브리드 방식), 등부표 식별강화용 LED 번호판 설치, CCTV설치를 통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등

### ○ 사주 변형이 심한 낙동강 하구 수로별\* 유속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시설(통항로 14개, 등주 393기) 개선으로 어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

\* 낙동강 하구 수로는 20개 어촌계 약 2,200여척의 소형어선이 통항로로 이용

- 수문개방(낙동강 홍수통제소)시 유관기관 협조체제(정보교환)구축, 전담팀(점검원, 전문업체)을 운영하여 최적 기능유지 등 신속한 현장대응

### ○ 항만보안시설 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보안사고 ZERO화 추진

- 新국제여객터미널 개장('15.6), 감천항 보안 시스템 구축('15. 8)에 따른 보안시설 (재)평가 실시('15.하)

- 감천항 취약선박(공치봉수망 등) 감시활동 강화(매년 11월~12월)

### ○ “컨”터미널 출입 보안체계 개선 및 중단 없는 항만민원 서비스 제공

- 부산항 컨-터미널(북항 5, 신항 5) 게이트자동화시스템(GCTS)\*에 항만출입 관리시스템(PSS)\*\* 기능을 통합한 컨-터미널 출입관리시스템 구축·지원('15.6)

\* GCTS(Global Cargo Tracking System), \*\* PSS(Port Security System)

- 재해대비 Port-MIS 및 DR센터 재해복구 자체·모의·실제훈련 실시,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(수시), 24시간 정보보안 모니터링 실시

해양환경 개선,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바다 및 연안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공간으로 재창조

## 10 이용자 중심의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

○ 오염원의 사전예방적 관리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태세 강화 등 전방위적인 해양환경 관리시스템 강화

- 「부산항 남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\*」 완료 이후 재오염 예방 및 공동·사후관리를 위한 「클린남항추진협의회\*\*」 발족·운영

\* 준설량(248천 m<sup>3</sup>), 준설면적(359천 m<sup>2</sup>), 사업기간('09~'14년), 총사업비(285억원)

\*\* 협의회 발족('14.12) → 실무위원회 구성 및 킥오프미팅('15.2)→ 관리방안 마련('15.3~)

- 2016년 “해양투기 ZERO화” 추진을 대비하여 해양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

\* 한시적 해양배출 허용 사업장(위탁업체 46개소)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(연중)

- “현장중심의 해양오염 사고 대책 매뉴얼”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강화로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

※ 정기적인 민·관·군 합동 방제훈련(1회 / 반기)

○ 해양보호구역\*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조화

- 보호구역 특성에 맞는 생태환경 보전사업과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사업 등 체계적인 관리사업 추진(지자체 협의·감독)

\* 나무섬·남형제섬 주변해역 : 제1차 관리기본계획('15~'19, 사하구) / 오륙도 및 주변해역 : 제2차 관리기본계획('13~'17, 남구)

## 11 고부가가치 연안공간 조성 및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

### ○ 연안의 가치 재창출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의 지속적 확대

- 모래 유실 방지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\* 지속 추진

\* (해운대 해수욕장) 양빈 62만<sup>m</sup>, 잠제 380m 등 / '12.11~'17.2 / 344억원('15년 78억원)

- 영도 동삼지구\*, 다대포 동쪽 해수욕장\*\*을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힐링(healing) 공간으로 조성

\* (영도동삼) 국립해양박물관 인근 호안정비 등 2.8km / '15~'18년 / 397억원('15년 19억원)

\*\* (다대포 해수욕장) 백사장 폭 60m 확보 / '15년 기본 및 실시설계(10억원)

### ○ 국민들이 등대를 찾아 쉴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(지자체 등 협업)

- 특색있는 조형등대 + 볼거리 및 휴식공간 제공 ⇒ 소규모 테마공원 조성

\* **대변항 월드컵 기념등대** : 2002년 공인구(피버노바) 모형물 설치 등 / **암벽등반 등대공원**(입지여건 및 시설설치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의 후 선정) 등

### ○ 부산항의 해상관광 명소(태종대, 자갈치시장, 해양박물관 등) 육성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적극지원

- 유선 운항 금지구역 **완화**(또는 해제)를 위한 연구용역\* 후 제도개선 추진\*\*

\* 영남씨그랜트 지역 현안사업으로 제안('14. 9), 과제선정('15. 2), 용역시행('15.3~8.)

\*\* 용역결과에 따라 「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」 개정 ('15.9~12)

### ○ 신항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산항 신항 홍보관 건립 추진

\* 전망타워형 홍보관, 항만체험장, 역사관 등 홍보·문화·휴식공간 마련

## 12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및 해양교육·문화 저변 확대

### ○ 해양홍보·교육 인프라스트럭처(Infra-structure) 구축

- 해양관련기관 교육·홍보 협의체를 활성화('14.7~)하여 수요자가 직접 찾게하는 **마중물 프로그램\***을 제공하여 해양정책 홍보 시너지 효과 극대화

\* 우리청, 국립해양박물관 등 10여개 기관(협의체)의 다양한 홍보·교육 프로그램을 수요자가 직접 구성하여 참여하는 연계 프로그램

- 해양에 대한 흥미 유발, 진취적 사고능력 및 자아실현 의지 배양을 위한 **맞춤형 해양교육\*** 프로그램 개발·운영

\*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해양교육(Wesea Academy) 실시, / 해양교육포털 사이트 구축, 해양교육 지도(guide map) 보물섬(가칭) 발간, 교육 동영상 제작('15.상),

### ○ 시민참여형 해양문화 체험기회 확대

- **카약체험장 상설 운영('14.5~10)**등 체험 기회를 **확대\***하여 해양레저·스포츠 문화정착 및 해양에 대한 인식전환

\* '14년 : 3개소(광안리·송도 해수욕장, 수영강), 250대, 17,142명) ⇒

'15년 : 4개소(낙동강 삼락생태공원 추가 ; '15. 5), 250대, 20,000명 목표

- 바다의 날 기념 **‘부산항 축제’** 기간(5월 바다주간) 중 해양을 직접 접할 수 있는 행사종목\*을 구성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해양의식 제고

\* 미니 카약체험장 운영, 소규모 청소년·가족단위 카약대회 개최, 등대 갈맷길 걷기 문화행사(부산관광공사) 등

### ○ 등대 해양문화 공간을 활용한 해양관광사업 활성화

- 국민들이 즐겨 찾는 등대를 **해양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연 및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**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

※ '13년 대통령 직속 기관인 「지역발전위원회」 과제(역사문화 보존 및 자원화)로 선정

-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강좌 개설, See & Sea 갤러리 및 바자회(기증품 활용), 사회취약계층(다문화, 결손가정) 초청행사 등 **해양문화 공간을 통한 나눔 실현**



### 13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자율어업육성

#### ○ 맞춤형 수산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어업경영체의 자율등록 추진

- 수산정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경영체\*를 대상으로, 자율등록 방식\*\*으로 추진

\* 어업경영체 등록 : 어업인(연간 판매액 120만원이상 또는 연 60일이상 어업종사자)·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·관리 → 수산정책 사업의 지표로 활용

\*\* 자율등록 :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의무등록이 필요하나, 현실여건 등을 감안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하되, 수산직불제 등 정책지원 사업과 연계

#### ○ 각종 어업인 지원정책 추진 시 필요한 어업인 확인업무의 제도화\*

\*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정('14.12). 우리부 자체 관리과제 추진(비정상의 정상화)

#### ○ 균형적인 자율관리어업\* 공동체 지도·평가\*\*를 통한 어업공동체 육성

- 수산정책 사업비 지원 등을 위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어업공동체 선발 및 평가

\* 자율관리어업 :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존·관리·이용하는 어업

\*\* 평가제도 : 예비평가(지방청 70%, 자율관리어업연합회 15%, 수협 15%)  
⇒ 본평가 (시·도 지역협의회 및 공동체 평가위원회(우리부)에서 확정)

- (예비평가) 관할 지역내 공동체의 전년도(11월말)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매뉴얼에 의해 현장 확인을 통한 전자평가 실시

\* 평가대상 : (당초)공동체 전수 → ('15년) 희망 공동체에 한해 평가(관계기관 협의)

- (추진계획) 평가주체, 방법 등 업무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(우리부, '15. 2) → 어업인 설명회 및 현지점검(우리부 주관 / '15.상) → 예비평가 업무 이관(지방청 / '16년)

## 14 다기능 어항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

-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관광·유통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의 기능을 고도화
  -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된 대변항을 수산분야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어촌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
  - \* (사업개요) 방파제 810m, 물양장 905 등 / '07.~'13년 / 910억원
- 소규모 어촌 포구를 국가 어항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제공
  - '08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된 천성항의 방파제, 물양장 등 기본 시설 건립
  - \* (사업개요) 방파제 360m, 물양장 320m 등 / '13.~'18년 / 365억원('15년 23억원)
-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지원부두 확충
  - 동북아 최대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개장('14.2)에 따른 본격 가동에 대비 수산물 양육부두 확충
  - \* (사업개요) 돌제부두 2기 신설 / '13.6~'16.6 / 285억원('15년 94억원)